

탈북대학생의 남북 교육경험 탐색 : 북한 내 교육 경험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이혜란*

요약 본 연구는 탈북대학생의 남북한 교육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북한에서의 경제적 배경과 교육 경험이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험한 탈북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에서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참여자들은 공교육의 공백이 없고, 사교육 경험까지 더해져 북한에서의 교육 자원이 풍부했으며, 이러한 교육자원은 한국 대학 학업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수학, 과학 등의 북한 사교육 경험은 기초학력으로 작용하여 한국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에 도움이 되었지만, 영어와 글쓰기 등의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탈북대학생, 북한 교육 경험, 학업적응, 질적 연구, 남북한 교육 비교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학, 학교통일교육 강사, graceful2020@naver.com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대학 생활 및 학업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탈북대학생은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경험한 후 남한의 이질적인 교육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학업적응은 대학 생활의 적응과 연결되고,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과 통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탈북대학생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탈북 청년의 다수가 대학 진학을 선호하며, 대학 졸업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우태 외 2022).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 수는 2023년 기준 1,680명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통일백서 2024). 그러나 탈북대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중도 탈락률도 높아져, 2018년 기준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12.4%로 일반대학생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다(오태봉·이희주 2022).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수업 적응의 어려움이 지적되며(남북하나재단 2013), 많은 선행연구에서 탈북대학생 및 탈북청소년의 학습 공백과 기초학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인숙·유시은 2015; 오태봉·이희주 2022; 정성희·조은식 2019).

기존의 탈북대학생 학업적응 관련 연구는 주로 남한 교육 환경에서의 학업 적응 과정에 집중하고, 북한 교육경험은 배경적 요소로만 간략히 다루어 왔다. 관련하여 박은미·정태연(2018), 정성희·조은식(2019), 정형수·양정호(2021)의 연구는 북한과 남한의 교육문화 차이로 인한 학습 공백을 지적했으나, 북한의 교육 경험 자체에 대한 구체적 탐구는 미흡하였다.

북한의 교육 환경은 1990년대 후반 경제난, 2000년대 초반 시장 개방 조치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무상의무교육을 체제 선전 문구로 활용 할 만큼 북한은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경

제난을 겪으며 북한 공교육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교육 기자재, 교사 배급(월급), 교과서 및 학용품 등의 보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의 공교육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 후 시장 개방 조치로 경제적 자원을 축적한 개인이 늘게 되면서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왔던 북한 교육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개방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가정에서는 공교육의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공교육에만 의존하거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처럼 경제난과 시장화를 기점으로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는 심화되었다. 특히 탈북대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북한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을 정도로 사교육은 북한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이혜란 2024).

최근 일부 연구에서 탈북대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혜란(2024)은 혼합연구 방법을 통해,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탐색한 연구에서 북한 및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탈북대학생의 한국 대학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북한 교육경험과 남한 사회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는데 안지연·김석호(2014)는 북한에서의 학교생활과 진로교육 경험이 탈북 이후 남한 사회적응과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정다운·김병수(2019)는 북한 교육환경에서의 경험이 남한에서의 진로 결정 및 사회적응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이은지·박순용·임해경(2019)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북한 내 교육 경험이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의 교육경험이 탈북 이후의 학업 및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북한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험적 차이나 가정환경과의 관련성,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과 성취와의 영향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난민 또는 이민자의 학업적응을 다룬 해외 연구에서는 난민 및 이민자

대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교육적 성취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tevenson과 Willott(2007)는 난민 학생들이 교육적 자본의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대학 내부의 지원체계 강화와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orrice(2013)는 난민 학생들이 본국에서의 교육적 경험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해외 연구 사례는 탈북대학생의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과 남한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을 강화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탈북 이후’의 환경·심리적 요인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북한에서 축적된 교육 자본’ 및 ‘가정환경(경제력·사회적 지위 등)’이 한국 대학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면담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특히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재된 북한의 교육 현실이 개인별로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교육 불평등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의 학업 성취나 진로 선택에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교육체계 및 개인 경험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과, 향후 남북 교육 통합에 대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자본이 사교육을 통해 교육 자본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남한 사회에서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지위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부르디외(Bourdieu 1977)가 제시한 문화자본 이론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여, 북한 내 경제력과 교육 격차가 탈북 이후 남한 사회에서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대학생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공교육·사교육 경험이 어떻게 달랐으며, 이는 어떤 배경(경제력, 권력, 가정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북한에서 형성된 교육 경험이 한국 대학 진학과 학업적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탈북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탈북대학생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탈북대학생들의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은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북한과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북한에서 공교육 및 사교육 경험이 있으며,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 7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탈북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 중에서 북한에서 공교육 및 사교육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교육 시기,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탈북 시점과 북한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참여자의 경험 맥락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표본의 ‘포화 시점(data saturation)’에 도달했다고 판단된 7명을 대상으로 최종 면담을 진행하였다(Creswell 2002). 면담 과정에서 유사한 진술이 반복되고,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을 최종 표본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참여자를 직접 만나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거나 참여자의 요청으로 1:1 온라인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담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였으며, 각 참여자와 최소 1~2회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자

료의 깊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당 약 60~90분 정도였으며, 장소는 주로 참여자가 원하는 커피숍이나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였다. 필요 시 전화 및 온라인 수단을 통한 추가적인 2차, 3차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참여자의 학업 일정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추가 면담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깊이와 타당도 측면에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횟수와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윤리 보호 및 신뢰성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썼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및 활용 방식, 익명성 보장과 참여자의 권리 보호, 자료의 보관 및 폐기 계획 등을 면담 시작 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원할 시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이내에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면담 참여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 자료는 A씨부터 G씨로 표기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 시기	학년
A씨	여	20	평안남도 문덕	고등 중퇴	2018	1학년
B씨	남	21	평안남도 평성	대학교 중퇴	2017	2학년
C씨	남	29	함경북도 회령	대학교 중퇴	2013	3학년
D씨	여	23	황해남도 해주	고등 졸업	2015	3학년
E씨	남	28	양강도 갑산	고등 졸업	2014	4학년
F씨	남	25	양강도 해산	대학교 중퇴	2014	4학년
G씨	남	32	함경남도 함흥	대학교 중퇴	2016	4학년

면담은 연구자가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개인적 배경, 북한에서의 공교육 경험과 사교육 경험, 사교육의 목적과

효과, 한국 대학 진학 과정과 전공 선택 배경, 한국 대학 수업 적응 및 성취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과 누락 방지를 위해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비언어적 표현과 참여자 반응 등도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분석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는 참여자의 신분 노출 위험이나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면담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강구섭 2015; 전경주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eswell(2002)가 제시한 질적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수하였다. Creswell(2002)은 질적 연구 절차를 문제 규명,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를 기반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코딩 및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된 면담 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분석하였다.

첫째, 면담 내용을 녹취록으로 전사한 후, 전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전체 자료를 반복적으로 탐색하여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에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술과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진술을 의미 단위로 정리하였다. 셋째, 의미 단위들을 범주화하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넷째, 구성된 범주를 중심으로 자료의 구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북한학 전공 교수 2인의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자는 북한 출신으로서 면담 참여자와 공동체적 정체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심층적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특성은 동시에 참여

자들의 진술 개방성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이 연구자와 동일한 북한 출신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탈북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의 중립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찰(reflexivity)을 수행하고, 괄호치기(bracketing)를 통해 연구자의 개인적 배경과 편견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1차 해석 이후 질적 연구 전문가 2인과 북한학 전공 교수 2인의 외부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적 요소를 철저히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탈북대학생들이 남북한이라는 상이한 두 사회에서 경험한 교육환경이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서의 교육적 배경과 경험이 한국 대학 학업적응에 미치는 구체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한 탈북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의미 단위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주제와 네 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표 2. 질적 분석 범주 구분

주제	하위 주제	의미단위
북한 교육 배경	공교육의 경제적 불평등	① 경제적 어려움과 공교육 이탈 ② 가정의 경제력과 교육환경 ③ 가정의 경제상황과 성적의 영향

	사교육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	① 경제상황에 따른 사교육 경험 ② 학교 교사들의 사교육 제공 ③ 권력층의 교육 투자 ④ 성적 경쟁에서의 사교육 활용
한국 대학 진학 및 학업적응	대학 진학에 대한 북한 교육경험의 영향	① 전공 선택에 영향 ② 기초학력이 된 북한 교육 경험
	남북 교육차이와 학업적응	① 남북한 교육의 차이 ② 사교육의 도움 필요

1) 북한 교육 배경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경험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었다. 무상 의무교육은 명목상 유지되었으나, 실제 교과서, 시설 유지비 등이 가정에 전가되면서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경제적 배경이 공교육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었다. 특히 공교육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경제적 하층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경제적 상·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은 사교육 등을 통해 학업 성취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만, 경제적 여건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비교적 경제 수준이 중간 정도임에도 높은 학업 열의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도 확인되었다.

(1) 공교육의 경제적 불평등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공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고, 극심한 빈부격차는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혜진 2018). 생계 자체가 중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학교를 자주 결석하거나 아예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못 산다는 게 좀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하층이면 개네는 학교도 잘 안 나오니까

사실 영재인지 뭔지도 모르죠.”(G씨).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교육 경험의 차이는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F씨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 반에 정말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결국 1고등 이쪽으로도 안 오더라고요. 선행 학습을 과외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술술 푸는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았나 봐요. (생략) 아무래도 부모님의 관심과 경제력이 중요하죠.”(F씨).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난과 더불어 시장 개방 정책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사회적 계층 구조가 기존의 정치적 기준에서 벗어나 사실상 경제적 기준으로 재편되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학생의 출석률, 성적, 진학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어느 집 애가 학교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공부도 못한다 그러고 바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개도 처음에는 나왔을 때 공부 엄청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학교 나와가지고 시험 보고 이러면 당연히 (성적이) 밑에 깔릴 수밖에 없고…”(G씨).

다만, 성적이 경제력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G씨는 중산층 학생 중에서도 오기로 학업에 집중해 높은 성취를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D씨 또한 사교육 참여 여부와 성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부모의 관심과 본인의 노력에 따라 교육 성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

“근데 상위권 애들이 잘 사는 애들도 일부 있는데 중간층인데 아득바득하는 집 애들도 있고 좀 그렇게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못 살면 다 (성적이)바닥이

긴 한데 그래도 뭔가 부모도 좀 관심이 없지만 애가 자기 이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살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G씨).

그러나 특수 교육기관(제1중학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등), 대학교 등 상급 학교로 갈수록 경제력이 결정하는 교육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들 학교는 학비 외에도 기숙사 생활비, 교사에 대한 뇌물, 각종 분담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상류층 자녀들이 진학하는 구조였다. B씨와 C씨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난다.

“거의 잘 사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좀 못 사는 애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1중학교 애들 보면 대부분 다 잘 살았어요.”(B씨).

“(사교육 받고)학교에서는 놀고 좀 많이. 이미 했던거고 그래서…그렇게 하면 (사교육 받으면)대부분 상위 10% 이상으로 들죠. 그러니까 보통 1, 2, 3등 안에는 계속 드는 거예요.”(C씨).

이러한 교육 현실은 단지 시험 성적이나 입시 결과의 차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 선택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 참여의 문턱에서부터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경제력이 교육 기회의 출발점부터 작동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된 학습 환경과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교육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 차원을 넘어, 교육이 계층 분화

를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사교육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1중학교와 같은 특수 교육기관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은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참여 여부가 좌우되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해 수학·외국어·과학 등의 주요 과목을 사교육으로 선행 학습하였다. B씨는 당시 반 학생들 중 약 20% 정도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사교육 참여 여부는 대부분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반에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교육 받는 비중이)한 20%정도?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못 받는 경우도 많죠.”(B씨).

이처럼 북한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사교육 기회의 핵심 요인이 되었으며, 사교육을 받을 경우 상급학교 진학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사교육 참여 여부는 제1중학교 등 특수 교육기관 진학뿐 아니라 이후 대학 입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고등을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아빠 엄마가...(생략) 공부도 상위권이었고 이제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는 되는(가정의 자녀들이 사교육 받음)... 공부를 못하면 애초에 이제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F씨).

“상위 한 10%로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먼저 (과외)제안을 해요. 1중학교를 가는 게 낫겠다.(생략) 당겨서 교육과정을 이미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막 교재가 있었어요. 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교재들이 그거는 참고 도서라고 해서 무슨 <최우등생의 벗> 이런 교재가 있었어요. 그런 책을 이제 막 (선

생님이)인맥을 통해서 수소문해 갖고 구해서…”(C씨).

D씨는 북한의 외국어학원(한국의 외국어고등학교에 해당)에 다녔는데, 이곳은 주로 무역 등 선망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했다. 그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사교육을 통한 실력을 쌓고 입학도 가능하다”고 회상하였다.

“(외국어 학원은)사교육 뒷받침이 없어도 정말 자기 실력으로 공부 잘하는 천재들이 오는가 반면에 진짜 이제 재력과 그리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사교육 받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해야 하는 거죠. 저희 외국어 학원에는 부모님들이 무역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D씨).

북한에서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소학교 때 시작하거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학교 때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1중학교 등의 면학 분위기가 있는 지역의 사교육 열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다. 제1중학교의 경우 졸업하면 대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성적이 높으면 김일성종합대학 등의 중앙급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을 경우엔 지방대에 입학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가 중요해진다.

“(제1중학교)그 안에서도 이제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야 대학 갈 때 그 1중학교 안에서도 상위 10%만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중앙대랑 지방대가 있거든요. 여기는 인서울이랑 지방대로 나누는데 (북한에서는)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지방대로 갈 수 있는 거랑 중앙대로 가느냐 그거죠.”(C씨).

특히 제1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상위 성적 학생들의 사진을 게시판에 붙이는 등 경쟁을 유도한다. C씨에 따르면, “좋은 성적을 위해 요일별로 과외를 받는 순번을 정하고, 해당일에는 교사 집에서 숙식하면서 기다릴

정도”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특정 지역(1중학교 소재지)에서는 사교육비가 더욱 높게 형성되고, 학부모들은 기숙사 생활비나 교사 뇌물 등 여러 부차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1중 다니면서 월요일은 내가 화요일은 다른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과외 받음)… 그랬더니 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험 보니까 이제 딱 3등 안에 딱 들어가고. 이제 학교 성적 게시판에 사진이 붙어요. 3등까지만. 그러면 이제 어느 반에 누가 잘한다더라 작년에는 붙었는데 올해 안 붙는 다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으로…”(C씨).

C씨의 진술은 북한 사교육이 단순히 학습 보완을 넘어서, 경쟁과 서열화를 강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요일별 과외 순번과 교사 집에서의 숙식 대기는 학습이 개인 주도의 활동이라기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경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권 학생의 사진과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시스템은 사교육 성과의 비교를 더욱 가시화하며, 학생들에게 성취와 위계의식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 동기, 시간관리, 평가 중심의 사고 형성과 같은 다층적인 교육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

“1고등 다닐 때 (학생들이)전국적으로 있었는데 (해산에서 과외)받을 때는 이제 (과외비가)50원, 100원 이랬잖아요. 해산에서 잘 사는 애들이 올라오고 외부에서 좀 잘 사는 정도가 다른 잘 사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페이(과외비)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에서 3~400원으로 오르기도 하고 아예 담임교사 기숙사 생활비 같은 거 전부 다 대주는 부모도 있었고 이제 학교 행사할 때마다 이제 화물차나 이런 거 아예 싹 다 대주는 부모도 있었고.”(F씨).

종합하면,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가정 경제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공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지만, 부유한 가정 자녀들은 사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더욱 벌

린다. 이러한 양극화된 교육 경험은 이후 탈북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했을 때 서로 다른 교육적 자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한국 대학 진학 및 학업적응

탈북대학생들은 북한에서의 공교육 및 사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학업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한국 대학에 진학할 때, 북한 교육 경험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거나, 북한에서 쌓은 학업 역량과 기초학력이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대학 진학에 대한 북한 교육경험의 영향

면담 결과, 북한에서의 심도 있는 교육 경험은 탈북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수학·물리 등 기초학문의 경우, 남북한 교육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를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은 학업 적응이 비교적 수월했다고 진술하였다.

“전공 선택에 (북한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일단 전공 자체가 제가 그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보자 했는데 정작 생똥맞게 무슨 내가 갑자기 법대로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컴퓨터 공학 간 거고...”(G씨).

F씨는 탈북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별전형 대신 직접 수능을 치러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북한에서 제1중학교와 사교육을 경험한 덕분에, 한국의 재수학원에서 영어 등을 1년 정도 보강했을 뿐인데도 2등급 정도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가 한국에서 재수학원 갈 때 같이 갔던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도 북한에서 와서 여기서 그냥 1년 정도 하고 영어 못한 거랑 다 해가지고 어쨌든 2등급 다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1고등 출신이기도 했고 너무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 과외도 여러 가지로…”(F씨).

북한에서의 다양한 사교육 및 소조 활동 경험은 탈북대학생들이 남한 대학 전공 수업에 선행학습 효과를 체감하게 하였다. F씨는 북한에서 경험한 사교육이 사고력과 학습 방법을 키우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남한 대학 수업에서 기초학력의 탄탄함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북한 깊이 있게 학습한 사교육 경험 자체가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업 동기와 학습 방법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은 사고력을 좀 키워줘서 사고의 폭이나 생각하는 정도, 공부에 대한 이런 열정이나 방법 같은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한국에서 공부하는데 도움 됨)…”(F씨).

G씨는 북한에서 소조 활동과 경진대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한국 대학 1학년 전공과목 수업에서 선행학습 효과를 주었다고 밝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 탈북민 안 된다. 여기 애들 20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해가지고 외고 나오고 무슨 특목고 나오고 자사고 나오고 해가지고 쟁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듣고 막 들어갔는데 또 실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이 된 거나 같으니까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내가 경진대회에 나가서 풀던 이런 완전 수준 낮은 정말 그런 거를 여기서 1학기 때 배우니까(쉬웠음)…”(G씨).

위의 사례들은 북한 사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사고력, 동기, 인지적·사회문화적 성장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F씨는 사교육을 통해 공부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강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씨는 북한의 교육 활동이

한국 대학 전공 수업과의 연계성뿐 아니라 학업 자신감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D씨는 사교육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극을 제공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개인의 학습 경험이 단순한 결과로 환원되지 않고,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며, 사교육의 교육 효과를 인지적·동기적·사회문화적 층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경험은 단편적인 사례를 넘어,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과 자본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적 과정은 북한에서 형성된 교육 경험과 경제적 배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Bourdieu(1977)의 문화자본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 내 사교육 경험, 제1중학교 진학 등은 곧 탈북 이후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적·사회적 자본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경제력과 결합된 교육 경험이 남한 대학의 전공 선택 및 학업성취에 직결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개인의 진로와 사회적 지위에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확인시켜 준다.

(2) 남북 교육차이와 학업적응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어와 글쓰기 등 한국 교육체계에서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탈북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북한 교육이 이들 분야를 충분히 다루지 않아(문희정·손은령 2019; 박은성·김옥연 2014; 오태봉·이희주 2022; 차지영 외 2019) 대학 입학 후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과의 학업 격차를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논술 조금이랑 영어 조금 받아봤어요. 아무래도 여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방법이랑 너무 다르고 북한은 너무 이런 좀 센 단어들 많다고 해야 되나 워딩이 그래가지고… (성적에)영향 줬죠. 왜냐면 논술 쓰는 형식도 모르고 그랬는데…(생략)”(G씨).

또한 참여자들은 남북한 교육 차이 중 하나로 평가 방식을 지적하였다. 북한

에서는 대부분 주관식 평가를 통해 풀이 과정을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객관식 평가가 일반적이며 정답 여부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은 학습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 북한에서의 학습 경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정답이 아니라도 과정만 좋아도 이렇게 점수를 주고 딱 정답이 안 나와도 시도가 새롭거나 하면 굉장히 칭찬해 주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방법으로 잘 풀고 해도 마지막에 다 와가지고 정답하고 쓸 때 막 소수점 하나 자리 잘못 찍거나 숫자 하나 잘못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안 봐줌)”(G씨).

“과학이나 화학 이쪽은 거의 비슷해요. 원소 주기표 이런거 여기서는 외우지는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좀 쉽죠 문제 풀 때.”(F씨).

결국 탈북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사교육을 받게 되는 주요 이유는 남북한 교육 차이로 인한 학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특정 능력 강화를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요약하면,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은 한국 대학 적응의 기반이 되었지만, 영어, 글쓰기, 평가 방식 등 일부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탈북대학생들이 북한과 남한이라는 서로 다른 교육환경 속에서 경험한 공교육 및 사교육이 한국 대학 진학과 학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교육 기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공교육이 실질적 기능

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산되었고, 이는 학생 간 학업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회의 경제력 기반 교육 불평등 구조를 지적한 기존 연구(김혜진 2018; 조현정 2022)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탈북대학생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탈북 이후 한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축적된 교육 자본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수학, 물리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는 사교육 및 심화학습 경험이 남한 대학 수업 참여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반면, 영어, 논술, 글쓰기 등 남북한 교육체계 차이가 큰 과목에서는 추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에서 축적된 교육 자본이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개인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지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르디외(Bourdieu 1977)가 제시한 문화자본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경제적 자본은 교육 투자라는 형태로 전환되어 자녀의 교육자본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문화자본으로 축적된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풍부했던 가정 출신 탈북대학생들은 북한 시절 사교육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역량과 심화된 학업 기술을 내재화하였다. 이러한 내면화된 문화자본은 남한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학업 경쟁력으로 발현되었으며, 초기 학업 적응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 사교육 접근이 제한되었던 학생들은 남한 대학에서 기초 학습 역량 부족으로 학업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은 경제력에 기반한 교육자본의 격차가 남한 사회에서도 문화자본 재생산의 구조를 따라 지속적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탈북대학생의 학업적응은 단순히 개인적 노력이나 심리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북한 내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이주 이후 남한 사회에서 학업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재구성되는 다층적 과정임을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탈북학생 연구가 주로 탈북 이후 적응 요인에 집중했던 한계를 넘어, 구조적 요인과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관

점에서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남북 교육통합 과정에서도 북한 출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내재된 불평등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남북한 간 단순한 제도적 통합만으로는 학업 성취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교육자본 축적의 불균형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탈북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교육 경험의 이질성과 사교육 접근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 이에 기반한 맞춤형 예비교육 및 학업 보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영어, 글쓰기 등 취약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함께,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학습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탈북대학생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표본의 규모와 특성상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을 비교하는 대조연구 또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혼합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교육자본 형성과 전환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탈북대학생 학업적응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신: 이혜란(국립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강사)(graceful2020@naver.com)

Correspondence: Hye Ran Lee(Instructor,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graceful2020@naver.com)

2025.01.15 접수, 2025.01.23 심사, 2025.05.1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구섭, 2015, 탈북교사의 북한교육에 대한 인식 고찰 -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시사점, 교육학연구, 53(2), 455-475.
- 김인숙·유시은, 2015, 탈북대학생 학업중단 요인과 지원 방안: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 다문화와 평화, 9(3), 122-142.
- 김혜진, 2018, 북한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북하나재단, 2013, 연구총서, 남북하나재단.
- 문희정·손은령, 2019, 탈북청소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혁신연구, 29(3), 141-167.
- 박은미·정태연, 2018,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7(2), 257-288.
- 박은성·김옥연, 2014, 대학 내 새터민들의 영어 장벽: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2(3), 335-359.
- 안지언·김석호, 2015,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서의 문화교육 경험과 한국 내 사회문화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국정관리연구, 10(2), 217-241.
- 오태봉·이희주, 202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지원 방안 모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7(2), 121-127.
- 이우태 외, 202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지 외, 2019, 탈북자들의 선행 교육경험이 남한에서의 적응 및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57(1), 159-188.
- 이혜란, 2024, 탈북대학생 학업성취 영향요인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주, 2015,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주간국방논단, 1566, 15-19.
- 정다운·김병수,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2), 29-59.
- 정성희·조은식, 2019, 탈북대학생 학업 적응 곤란 요인 및 적응 지원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1257-1279.
- 정형수·양정호, 2021, 탈북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413-431.
- 조현정, 2022,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53(4), 101-130.
- 차지영 외, 2016, 새터민 대학생의 한국 간호학 교육적응 경험, 질적연구, 17(1), 22-38.
- 통일부, 2024, 통일백서, 통일부.
- Bourdieu, P., 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Karabel, J., and Halsey, A. H.(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487-511.
- Creswell, J. W., 2002,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orrice, L., 2013, Learning and refugees: Recognizing the darker side of transformative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63(3), 251-271.

Stevenson, J. and J. Willott, 2007, The aspiration and access to higher education of teenage refugees in the UK.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37(5), 671-687.

Exploring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North Korean Schooling on Academic Adaptation

Hye Ran Lee*

Abstract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s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analyzing specific cases to understand how economic background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in North Korea affect their academic adjustment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defector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North Korea.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from higher socioeconomic backgrounds in North Korea had greater educational capital due to consistent public education and additional private tutoring, positively influencing their academic adjustment in South Korea.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aided foundational skills in math and science, whereas further support was needed for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ing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English and writing.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ailored educational support systems considering the unique backgrounds of defector students.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North Korean Educational Experiences, Academic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Comparative Edu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nstructor, graceful2020@naver.com